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평양성

우리 민족의 발상지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안은 성벽들로 가로막아 내성, 중성, 외성, 북성으로 나누었다고 한다.

나 돌과 흙을 섞어 쌓기도 하였는데 통성에서는 외면축조방벽을, 평지에서는 양면축조방벽을 썼다고 한다.

의 축성년대와 함께 평양성건설에 고구려의 5부 사람들이 동원된 사실, 성공사의 담장구간, 담장자의 이름과 벼슬 등이 밝혀진데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였다.

평양시 평천구역에 위치한 만수대창작사역에는 아직도 옛성의 자태가 남아있다. 사회과학원의 리일심연구사는 이곳에서 평양성의 지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평양성은 북쪽에 금수산이 솟고 동, 서, 남 세 면에 대동강과 보통강이 둘러막아 자연해자를 이룬 유리한 지대에 자리잡았습니다. 평양성의 바깥성벽은 금수산의 모란봉을 북쪽끝으로 하고 서남으로 울밀대, 민수대를 지나 다시 모란봉에 이르렀는데 그 둘레는 약 16km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평양성

내성은 궁성이고 중성은 중앙관청들이 있는 황성이었으며 외성은 주민거주지역이었다. 북성은 내성의 보위성인데 여기에는 사원 등도 배치하였다. 성벽은 돌로 쌓

나 돌과 흙을 섞어 쌓기도 하였는데 통성에서는 외면축조방벽을, 평지에서는 양면축조방벽을 썼다고 한다. 성문은 내성과 중성, 외성 등에서는 각각 네 면에 내고 북성에서는 남쪽과 북쪽에만 내었다.

리일심연구사는 《고구려는 외부와 통하는 중요한 성문들에는 웅성을 쌓았습니다. 또 평양성에는 7개의 장대가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것이 내성의 울밀대와 북성의 최승대입니다.》라고 하면서 평양성벽에서 발견된 글자세간 고구려성물들에 의하여 평양성

동등한 화법을 새겨가는 사람들



조개껍질의 다양한 색깔과 무늬를 조형적표현수단으로 하는 만년화는 공화국의 독특한 공예의 하나로서 다른 나라들에서도 인기를 끌고있다.

나는 특산물을 훌륭히 만들어 볼 결심을 안고 새로운 공예품제작에 달려본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리원군공예품공장의 종업원들이었다. 이들의 고심어린 노력 끝에 조개껍질을 여러가지 색깔로 가공하는 방법이 도입되고 이에 기초하여 만든 상감 또는 부각형식의 공예품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창작된 만년화는 생동한 형상과 황홀한 표현수법으로 하여 어디서나 호평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천연기념물

모향산 날다라미

모향산날다라미는 향산군 향암리에 있는 조선의 특산 야생동물이며 모향산이 대표적인 날다라미살이러의 하나이므로 천연기념물 제83호로 지정하고 보호중시시키고 있다.

은 동지에서도 산다. 낮에는 동지에서 쉬고 밤에 활동한다. 겨울에는 겨울잠을 자지 않으며 자주 먹지도 않는다. 날다라미는 날개막을 리용하여 날아다니는데 나는 거리는 30~50m이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날 때에는 80m까지도 날다.



자작나무, 단풍나무의 꺾절과 짙은, 나무순, 오디, 솔씨, 가문비나무씨, 분비나무씨를, 겨울에는 잣과 오리나무열매를 먹는다. 1년에 한번 새끼를 치며 보통 4마리정도 낳는다. 본사기자

1월은 한해중에 제일 추운 달로서 소한과 대한이 이 시기에 든다. 민간에서는 소한부터 진

토장국이나 전골을 비롯한 더운 음식을 즐겨 먹었다. 특히 밥우에 룽두지집과 버섯볶음을 넣고 무친 닭고기를 놓은 다음 뜨거운 닭고기국물을 부은 후 맨우에 양념장과 닭알을 넣고 깨소금과 후추가루를 뿌린 평양은반은 그 맛이 독특한 것으로 하여 소문이 났다.

1월의 절기와 민속

1월은 한해중에 제일 추운 달로서 소한과 대한이 이 시기에 든다. 민간에서는 소한부터 진

또한 이 시기에 옷놀이와 함께 널뛰기, 연타우기, 썰매타기를 비롯한 다양한 민속놀이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1월절기의 계절적특성에 맞게 다양한 생활풍습을 창조하고 변천하여 오왔다. 올해의 소한은 1월 5일이고 대한은 1월 20일이다. 본사기자

인삼로리

인삼정과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보신강장효과가 아주 뛰어난 인삼을 여러가지 로리에도 리용하였다.

인삼은 뿌리꼭지를 자르고 0.2cm 두께로 편을 내어 삶는다. 작은것은 그대로 삶는다. 인삼이 익으면 사탕가루와 꿀을 두고 졸인다. 인삼이 끈적끈적해지고 좁이 까맣해지면 접시에 담고 졸을 친다. 이렇게 하면 달달하고 먹기도 좋은 인삼정과가 만들어진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 ◆ 종이장도 맞들면 가벼다. 어떤 일이든지 혼자 하는것보다 서로 힘을 합쳐 하면 쉽다는 뜻으로 집체적합을 동원하는것이 중요함을 비겨 이르는 말. ◆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함께 하는 일이 잘되려면 두권이 다 적극 나서서 힘을 합쳐야 한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 필백금으로 집을 사고 전금으로 이웃을 산다. 사람에게 있어서 집도 중요하지만 집이나 재물보다도 이웃을 잘 사귀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것이 더 중요함을 이르는 말.

사회

돌칸 한증 (1)

한증이란 땀을 내며 몸을 뚫다는것을 뜻하는 말이다. 한증은 높은 온도에서 땀을 내면서 건강을 보장하는 일종의 민간치료방법으로서 조선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져 온 민간풍속이다. 한증이 땀을 내면서 건강을 위한다는 의미에서는 다 같지만 한증시설과 방법에서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증시설에서 기본은 리용되는 재질인데 통나무나 판자로 꾸린 한증칸, 벽돌로 쌓은 한증칸 그리고 비닐자루속에 전열기를 넣은 한증기구 같은것도 있다. 개성지방의 한증의 특징은 돌로 쌓은 도가니를 가열한 다음 그안에 들어가 땀을 내게 하는것이다. 이 돌칸한증은 오래전에 유래된 고유한 민간풍속으로서 오직 개성지방에서만 볼 수 있다. 개성돌칸한증의 유래는 깊고 한증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이야기들도 많다. 개성에 사는 홍서방이란 사람이 도풍(도자기 굽는 사람)으로 한창 이름을 날릴 때이니 아마도 유명한 고려청

자기가 그 아름다운 비취색과 우아한 모양으로 세상을 경탄시키던 그 시기일것이다. 하루는 이웃에 사는 등집장사 최서방이 와서 하는 말이 무거운 장사짐을 지고 한행보 다녀왔더니 걸둑이 들었는데 몸이 지긋지긋하다면서 가마에 들어가 땀을 좀 내자는것이였다. 사람 좋은 홍서방은 꺾절 솜을 찼다. 《입자가 이젠 가마맛이 단단히 들었군. 먼길을 다녀 오자바람으로 여기부터 찾는 걸 보니...》 《그렇게. 가마에 한 번 들었잖나 나오면 걸둑이 쪽쪽 리고 몸이 날것같이 가벼워 지는데 그런 맛을 어디 가서 보셨나.》 홍서방도 뜨거운 가마속에서 땀을 내는것이 그렇게 좋은줄은 몰랐었다. 늦가를 쌀쌀한 어느날 몸살이 나면서 으슬으슬 추워 오는데다가 구운 도자기들을 다 꺼낸 다음 피곤이 몰려오기에 저도 모르게 더운 가마안에 쓰러져 잠이 들었었다. 얼마후 잠에서 깨어보니 온몸이 물에 빠졌다난것처럼 땀에 흠뻑 젖었는데 밖에 나

그림 김윤일

와 땀을 씻고나니 몸이 거뻐해졌다. 몸살도 간데없고 없이 사라지고 몸은 날듯이 가벼워졌다. 무슨 신기한 명약을 쓰고난것같았다. 그 이야기를 이웃에서 등집장사로 사는 등갑도래 최서방에게 하였더니 최서방이 걸둑을 풀었다면서 가마를 헤치는 날을 기다려 두어땀 땀을 내었다. 그러더니 이제는 한행보 하고나면 의례히 홍서방을 찾아와 땀을 내자고 청얼거리는 것이였다. 《허허... 그림 어디 실컷 땀을 내보게. 마침 가마를 방금 비웠는데 나도 시간이 있으니 입자를 동무해 주지.》 이렇게 되어 두사람은 가마속에 들어가 땀을 낼 잠도리를 하였다. 땀을 내면 목이 마를것이 걱정이되어 물을 한바가지씩 들이키고 옷을 훌렁 벗어내내내 뜨거울 것을 참으면서 가마안에 들어가 었드려었다. 한참이 지나자 두사람 다 구운 개처럼 빨갛게 익어서 험해져서 가마안에서 기어 나왔다. 그리고는 가마열으로 흐르

는 찬 개울물에 뛰어들어가 어루- 어루- 하면서 땀과 재를 씻어내었다. 기분이 날것같이 좋아진 최서방이 옷을 주어입으면서 말하였다. 《어보게, 좋은 궁냥이 하나 떠오르네. 땀을 내니 머릿도 아마 잘 돌아가는 모양일세.》 《그래, 무슨 궁냥인데 그

준 땅마지기까지 저장잡힌다지만 이 맛을 알면 만사를 제치고 달려올것세.》 《허허... 하긴 그럴법도 한 일이야. 하지만 아직 사람들이 이 땀내는 가마안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고있으니 찾아오기나 할까?》 《입자말을 듣고보니 그것도 난사로우만.》 최서방은 잠시 무엇인가 생



렇게 좋아하나?》 《분수없는 등집장사로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하는 신세인데 같은 값이면 내가 이런 땀내는 가마를 만들어놓고 밥벌이를 해보면 어떻겠나?》 《땀내는 가마? 글세... 그게 밥벌이가 될까?》 《허, 사람들이 이 재미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처럼 한번 맛을 들여만 보지. 주색잡기에 미치면 조상이 물려

렇게 반하게 만들어야 하네. 가마싸는 일은 내가 도와줄터이니 입자는 우선 벌이의 리속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해주겠는가 하는데 관심을 돌려게.》 《고맙네. 입자까지 도와 주겠다면 내 쪽 이 일을 성사시켜보겠네.》 최서방은 벌써 일이 다 된것처럼 좋아하는데 매사에 궁냥이 깊은 홍서방은 다시 혼신을 했다. 《자고로 만사생내는 마음가지기듯이 하고 했는데 입자가 리속을 먼저 보려고 하면 일은 틀러질거네.》 예로부터 우리 나라는 풍속이 아름답고 인심이 어질어서 이웃을 서로 돕고 속일줄 모르며 저를 위해 한가지를 할 때 남을 위해 열가지를 하는것을 미덕으로 쳐주었네. 그러니 입자도 이 땅의 순후한 풍속에 어울리게 일을 시작하면 만사일이 받아들여지겠지요. 그렇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 없겠네.》 《알겠네.》 이리하여 얼마후부터 최서방과 홍서방은 땀내는 가마를 만든다고 널리 소문을 내면서 돌로 도자기굽는 가마 비슷하나 사람이 드러내고 땀내는 데 편리하게 자그마한 가마를 쌓았다. 그런 다음 가마안에 나무를 들여놓고 불을 지펴 가마를 달구었다.